

의료자원				번호: IV - C - 4	
제 목	국문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의료대란 이후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의학 및 의료에 관한 인식차이			
	영문	A Survey of Student's Perception and Evaluation on Medicine and Medical System after Korean Doctors' Strik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우철, 권호장, 하미나, 김형규 ²⁾ , 조수현 ³⁾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²⁾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			
	영문	Jeong Woo Chul, Hojang Kwon, Mina Ha, HK Kim ²⁾ , Soo-Hun Cho 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³⁾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정우철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p>연구목적 및 배경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및 의료대란을 둘러싼 의사 및 의료에 관한 의대생과 비의대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p> <p>연구방법 본 조사는 기초의과학육성협의회가 2001년 6월-9월에 걸쳐 전국 의대생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학 및 의료에 관한 의대생 의식조사" 설문을 이용하였다. 이중 의약분업 및 의료대란과 관련된 설문문항의 결과를 무작위로 추출된 해당학교 전체 정원의 15%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비의대생은 3개 대학 (서울대, 단국대, 고려대)의 의과대학 교양강좌를 듣는 총 300여명 이었다. 설문결과의 분석은 두 군 간의 빈도 및 평균점수 비교를 X²-test 및 t-test로 하였다.</p> <p>연구결과 분석대상 의대생은 1,837명이었으며, 비의대생은 273명이었다. 의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현재의 의사의 위치에 대한 응답에서는 비의대생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이상적인 의사의 위치에 대한 응답에서는 의대생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의약분업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양쪽 군 모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함"이 48.5%, 53.5%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의약분업의 목적으로 의료재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대답한 비율이 의대생에서는 각각 17.3%, 15.3%로 나타나 비의대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들(정부, 의사 등 모두 8군)의 행위를 평가하라는 질문에서 두 군의 답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군 모두 대부분의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들이 '잘못했다'라는 평균점수를 부여하였다. 단,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의대생이</p>					

비의대생보다 다른 항목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쁜 점수를 주고 있었다(두 군이 부여한 점수 차이 언론 -2.69, 시민단체 -3.69). 의료 수가의 경우 83.4%의 의대생이 “의료수가가 싸다”라고 답하였으나, 비의대생은 87.1%가 “비싸다”로 답하였다. 더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수가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의대생이 의료대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 (63.1%)’이었으며, 두 번째 원인으로도 ‘정부의 준비 부족’과 여당의 여론 수렴 부족’을 선택했으며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개입 등을 들었다. 비의대생의 경우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정부의 부족’ (50.2%)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30.9%) 및 약사의 집단 이기주의 (26.7%) 등을 꼽았다. 의대생은 의사과업에서 의사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의대생보다 평균 2.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고찰 및 결론

의료계에 시장경쟁체제가 도입, 발전되는 변화의 와중에 의약분업과 의료대란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이익갈등 양상이 국민들에게 표출되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되었다. 비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항목에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의대생들은 의료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경영논리나 시장제도에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의대생과 비교하여 볼 때 의대생들은 정부, 여당 및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대란 이후 의대생들은 의료계 자체와 사회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의 이런 달라진 의대생들의 의식이 변화된 의료체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의대생들의 사회성 교육에 좀 더 많이 관심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